

# “어머니의 뜻 이어받아 민주·인권 꽃 피우겠다”

광주 정치권·시민단체 배은심 여사 추모 이용섭 시장 “약자들에 따뜻한 어머니” 민주당 “너무나 큰 빛을 졌습니다” 국민의힘 “고인의 가치 실현 하겠다”

지역 정치권과 80년대 민주세력, 시민사회단체들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를 추모하며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민주화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배 여사의 별세를 통해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대장정을 돌아보며 애도하는 성명도 잇따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추모성명을 내고 “잔인한 국가폭력에 이들을 잃은 어머니는 남은 삶을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다 바쳤다”며 “편안한 집보다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에 나서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기억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곳곳의 민주화운동, 인권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며 불의 앞에 분노의 목

소리를 높였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셨던 시대의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이 땅에 정의의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인권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추모 성명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아들 이한열 열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외받는 약자들 곁에서 늘 연대하는 삶을 살아오신 민주화의 어머니를 애절한 심정으로 추모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는 어머니께 너무나 큰 빛을 졌다. 이제 어머니의 뜻을 저희가 이어 받아 꽃피우겠다”면서 “부디 그곳에서 아들 이한열 군을 다시 만나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란다. 민주화의 어머니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선대위도 “열사들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광주 선대위는 “민주화를 위한 고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한 민주화의 열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인이 평생 꿈꿔왔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 뜻을 기릴 수 있을 것이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고인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노력에 앞장서겠다”면서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우리 모두는 배은심 선생님께 큰 빛을 졌다”면서 “1만 당원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진보정치가 꽃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애도를 표시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외받는 약자들 곁에서 늘 연대하는 삶을 살아오신 민주화의 어머니를 애절한 심정으로 추모합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그는 민주화 시위와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았고,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아픔이 있는 곳, 부당한 국가 권력에 항거하는 맨 앞 줄에 늘 자리하셨다”면서 “민주화를 위한 고인의 삶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민주화의 열망, 약자를 향한 뜨거운 연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9일 오전 별세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의 빈소가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재명, 경제·실용 행보로 우위 굳히기 나선다

내일 ‘이재노믹스’ 공약 발표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벽두부터 경제·실용 행보를 통해 대선 승부처인 중도층을 집중 공략,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해 40%대 지지율을 선점함으로써 대세를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1일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년 경제정책 발표에 나선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9일 “새해 첫 공약의 의미를 담아 일자리, 미래 등을 포괄한 성장 정책이 이번 경제정책 발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전환적 공정 성장”을 경제 정책의 거대 담론으로 내세웠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저성장·양극화의 근본 해법으로 ‘기회 총량의 확대’를 큰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 4일에는 ‘국제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 등 이른바 ‘5·5·5 공약’을 발표하면서 점진·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주 회견을 통해 임기 중 ‘5·5·5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 경제 정책 발표가 지난 6일로 예정됐다가 11일로 미뤄진 것도 공약의 디테일을 보강하는 작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 이후에도 재계 감당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방문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설 이전 지지율 40%대 안착’을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아련의 주된 공격 소재인 ‘포퓰리스트’라는 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임을 깨고 중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만의 성장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강하다. 두 후보가 나란히 출연한 지난달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서 윤 후보보다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또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

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보)’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찌된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호남 정치권 이재명 선대위 직함 경쟁 치열

당, 역할 주며 대선 참여 독려 지방선거 입지자들 ‘이재명 마케팅’ 효과 기대

내년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대선을 승리할 경우 ‘이재명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며 직함에 이름을 하나라도 올리기를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는 총 65개에 달한다. 공정성장, 신복지, 사회적 대전환 등 굵직한 의제부터 통일, 부동산, 균형발전, 외교 등 현안과 정책까지 망라돼 있다. 17개 시도당별로도 각종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광주 선대위에만 8개의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 등 상설위원회 12개, 교육, 기본사회, 문화, 균형발전, 안전 사회, 노동 등 특별위원회 7개 등 위원회가 27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많은 위원회를 띄우고 거기에 직함 과 역할을 주며 대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부터 복당을 추진 중인 과거 탈

당자들에게도 위원회 직함을 주고 선거 운동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와 지역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13일 복당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원팀 선거 운동’을 이끌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원을 비롯해 외부 인사, 복당 자까지 선대위 직함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에선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여겨지는 만큼 ‘민주당 간판’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대선 기여도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대선에서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특히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등 ‘문제인 마케팅’이 사실상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대선 승리가 절실한 만큼 대선에 참여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함에 모두가 민주당·이재명 직함을 사용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 원 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